

호복고 독해 연구(I)

박준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the 'Hobokko' (I)

Chun-Sun Park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3. 31, 심사(수정)일: 2008. 8. 11, 게재확정일: 2008. 8. 18)

ABSTRACT

A history of Chinese Costume is that of the accept and the struggle between the 'Shen-Yi' of Han(漢) race and 'Ho-Bok' of foreign races. There are the 'Shen-Yi Ko' and the 'Ho-Bok Ko' in their representative documentary. They are quite significant materials for the researchers of the Oriental cost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abou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hen-Yi Ko' and the 'Ho-Bok Ko' give a guidance to Chinese costume's researcher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The 'Shen-Yi', having made a dress joined an upper to the low clothing together(上衣下裳) and deeply covered the parts of all the bodies, was named, had appeared the Spring-Autumn & warring state period(春秋戰國時代) and later the former Han Dynasty(前漢). Not only everyone in spite of men and women, without distinction of rank, high and low alike but also even the court dress(朝服) and from latter Han Dynasty(後漢) only the housewives could have worn it. The 'Shen-Yi Ko' disappeared its records and remains and at present nothing leave behind. The 'Ho-Bok' is a costume of the nomadic horse-riding people among the foreign races, then influenced upon the Chinese costume. The style of the Chinese costume consists of 'Yi Sang'(衣裳) and the 'Ho-bok' of foreign races, 'Yi Ko'(衣袴). The 'Yi Ko'(衣袴), derived from the King Muryoung of Cho Dynasty, had greatly been changed the chinese men's clothing and After that 'Ko Sup'(袴褶). The Chinese have enjoyably and familiarly the accepted 'Ho Bok' for a long time.

Key words: Ho-Bok(호복), Shen-Yi(심의), Go Sup(고습), Yi Ko(의고), Yi Sang(의상)

I. 서론

중국 고대의 복제로서 옛날부터 심의(深衣)의 제도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구성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가지의 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체에 대하여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중국 전통복장은 형식상으로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하나는 상의 하상제이고 또 하나는 의상 연속제인데, 심의는 후자를 말한다. 여기 중국 전통복제에 대하여 호복이 출현한다. 송조의 심팔¹⁾은 중국의 의관은 북제(北齊) 이래로 모두 호복(胡服)을 입게 되었다²⁾고 한다. 북제(550-577)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북조에 해당하며, 이어서 수(隋)에 의해 통일될 운명에 있던 왕조였다. 그러나 호복을 중국에 도입한 것은 전국시대 조무령왕이었다. 전국책 조책과 사기 조세가 중에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 묘사되어 있다. 호복착용이란 2천년 이전의 봉건사회 성립 초기에 조상 전래의 복제를 폐기하고 북방 호인의 의장을 입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복식문화는 한민족 문화와 북방민족 문화의 두 개의 흐름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것을 추구함에는 역시 두 개의 문화권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그 속에서 복식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복식의 역사는 심의와 호복과의 수용과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료 문헌으로 일부식 의를 예찬한 심의고와 이부식 의를 예찬한 호복고가 있다. 복식사 연구자들에 있어, 심의고와 호복고만큼 인용되는 논고는 없을 것이며, 특히 동양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이들 저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심의고와 호복고는 일부식 형식과 이부식 형식의 복장으로 구별되는 대명사로, 동양복식은 물론 세계복식을 대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심의는 중원 한민족의 전통복식의 전형이며, 호복은 중국주변 이민족 특히 유목기마민족의 복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나아가 장의와 단의를 상징하는 복식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용이나 비판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또한 심의고와 호복고만큼 그 실체에 접근한 자세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심의고와 호복

고를 비교분석하여 복식연구자들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이론이나 복제의 발견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소개함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이론이나 복제의 발견이 아니고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소개하려는 것이다.

호복고와 심의고의 중요성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왔으나, 그 원전의 해석문제로 인하여 그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중국 복식의 2개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심의와 호복을 비교 검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복식을 서술하고 있는 황중희의 심의고와 왕국유의 호복고를 중심자료로 하고 시대적인 범위도 그것에 따랐다. 기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중국의 고전 문헌은 사고전서를 참고로 하였다. 호복고의 전반부(前半部)에 관해 해석은 이미 발표된바 있는 스키모토 마사토시(杉本正年)의 왕국유 호복고역주³⁾를 참고로 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이 장대하여 우선 논문 I에서 호복고의 전반부를 소개하고, 논문 II에서 호복고 후반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호복고의 저작의 전말

왕국유(王國維:1877-1927)는 민국시기, 절강성(浙江省) 해녕(海寧) 출신으로 자는 정안(靜安)이며 호는 관당(觀堂)이다. 나진옥(羅振玉)를 따라 고증학·금석학을 연구하였다.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물리학교에 유학하던 중 각기병으로 귀국하였다.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일본 京都로 망명하였다가, 1916년 귀국 후 상해에 창립된 썬명지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였다. 1923년 북경에서 청조 고증학 연구에 몰두하여, 곽말약(郭沫若)·문일다(聞一多) 등의 역사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안양에서 출토된 갑골문을 정리하고 복사(卜辭)의 연대를 고증하여 갑골문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주대의 금문과 설문의 서체를 비교하였으며, 중국음운의 변체를 구명하기도 하였다.

청말에 왕국유는 선통제에게 남서방봉공(南書房供

奉)이라는 명을 받아 자금성내의 고서적이거나 고동기(古銅器) 등을 조사하던 중 단기서(段祺瑞)의 정변으로 선통제가 자금성에서 추방되자 왕귀웨이도 사직하였다. 그리고 淸華대학 연구원 교수로 초빙되었고, 베이징대학 국학연구소를 지도하면서 청조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1927년 蔣介石이 남경정부를 수립함에 이르러 청조개건의 꿈이 사라져 비관 투신 자살했다. 그 해 5월3일 대학 서방에 있는 頤和園의 昆明湖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다.

호복고가 실려 있는 관당집림(觀堂集林)24권본은 그의 사망 후 나진옥 등에 의해 편집된 유고집이다. 이미 왕귀웨이 생전 1921년에 그 자신이 정리한 20권 본이 간행되었고 나중에 24권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런데 호복고가 저술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가 왜 호복고를 지었을까. 이 점에 대하여 스키모토(杉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주족은 한족 왕조인 명에 대신하여 약300년 간 중국을 지배했으나,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나진옥과 왕국유의 만주족은 망국의 민족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 만주족 일부에는 일본의 개입에 의해 손문 등의 혁명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결국 청조부흥은 이루지 못하였다. 호복은 만주족 고유의 복장으로 청조가 중국본토를 제압한 1645년 전국에 명령을 내려 모든 한족에게 만주복의 착용과 변발을 강요하였다. 그 이후 중국인의 복장은 만주복 또는 지나복으로 불리면서 오늘날의 중국복으로 변하여, 청조·민국시대를 통해 중국인의 기본적 복장이 된 것이다.

그 이전 명말 청초의 대유학자로 명이대방록⁴⁾의 저자로서 저명한 황종희(黃宗羲:1610-1695)는 청조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저술로서 마친 한족 출신이었으나, 그는 만년 심의고 1권을 저술하여 한족 고유의 복장이었던 심의의 복제가 중국 전토에서 사라지는 것을 비통히 여겨, 심의의 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한족 국가 명조 멸망의 한을 호소하였다. 이 심의고는 건륭시대의 사고전서에도 수록되고 있어서 왕국유도 당연히 이것을 읽었음에 틀림없다. 나아가 그 출신지도 같은 저장성으로 민족의 차별은 있어도 우국의 정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왕국유는 심의

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호복고를 저술하여, 그 고증을 변론함으로 청조 망국의 한탄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⁵⁾ 왕국유는 청조복식을 호복으로 간주한 것이다.

Ⅲ. 호복고 역주

본 호복고를 역주함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 큰 제목에 번호를 부쳤으며, 원문은 부록으로 뒤에 첨부하였다.

1. 호복(胡服)이 중국에 처음 들어 온 것은 조국⁶⁾의 무령왕⁷⁾에서 시작된다.

사기육국표⁸⁾에 의하면 조무령왕 19년에 처음으로 호복이 들어왔다.

胡服之入中國始於趙武寧王
史記六國表趙武寧王十九年初胡服

2. 호복의 해문관⁹⁾

이 해문관은 채옹¹⁰⁾의 독단¹¹⁾에서 무관(武冠) 혹은 번관(繁冠)이라 하여 오늘날 말하는 대관(大冠)으로 무관이 착용하는 것이다. 시중·중상시¹²⁾는 이 대관에 황금으로 된 부선¹³⁾을 가하고 초피미¹⁴⁾로 장식하였다. 대부¹⁵⁾ 호광¹⁶⁾은 조국의 무령왕이 호복을 모방하고, 처음으로 조선의 장식을 첨가한다고 하였다. 진(秦)이 조(趙)를 멸망시켰을 때 조왕의 관을 시중에게 주었다.

사마표의 속한서여복지에서 의복제도에 대하여 무관을 혹은 무변대관이라 하여 모든 무관이 이것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시중·중상시는 황금당¹⁷⁾·부선으로 꾸미고, 초미로 장식하였는데 이것을 조의 해문관이라 칭하였다. 호광에 의하면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을 모방함에, 금초¹⁸⁾로서 앞머리를 장식하고 초미를 쫓아 높은 등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진(秦)나라가 조(趙)나라를 멸하고, 조국 왕이 쓰던 군관(君冠)을 근신에게 주었다.

또한 무관(武冠)은 속칭 대관(大冠)이라 하였으며, 둥근 구슬을 푸른 실끈으로 꿰어 묶은 후, 꿩꼬리 두

개를 관위에 꽂는다고 하였다. 갈(鷓)이란 새는 용맹한 평의 일종인데, 싸우기 시작하면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한다. 고로 조무령왕이 이것을 용사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진나라에서는 이를 말에 장식하였다.

〈왕국유생각〉 호복의 관을 한대(漢代)에는 무번(武弁) 혹은 번관(繁冠)이라 하였다. 옛날의 번(弁)은 반(盤) 혹은 번(繁)이라고도 읽었는데, 주대에 번을 사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조선(貂蟬) 및 갈미(鷓尾)를 꽂는 습속은 확실히 호속(胡俗)에서 나온 것이며, 초선을 꽂은 것을 조나라에서는 혜문관이라 칭하는데, 혜문이란 무령왕 아들 하(何)의 시호(諡號)이다. 무령왕과 혜문왕도 역시 호복을 입었지만 후세에 그 전통을 잃어버렸어도 혜문이란 명칭만은 남아 있다. 그 혜문관에 쌍갈미를 가한 것을 갈관 혹은 준의관(駿驥冠)이라 하였다. 회남자주술훈에 무령왕이 패대(貝帶) 준의(駿驥)하고 조회에 임하였다하니 조나라 이후에도 이를 따랐다. 고유주¹⁹⁾에 준의를 사비두(私鉗頭)라 읽어, 두 글자를 세개의 음으로 하였지만, 대개 '駿주'²⁰⁾로서 대구의 사비²¹⁾인 것이다. 그러나 사기영행전에 의하면 효혜시²²⁾에 낭중²³⁾ 모두 준의를 쓰고 혁대를 찼다. 설문해자 조부(鳥部)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진한 초에 시중²⁴⁾이 준의의 관을 쓴다고 한 것을 보면, 회남서의 '준주'라는 것은 확실히 준의의 틀린 글자이다. 또한 이것은 관명(冠名)이지 대구(帶鉤)의 명칭은 아니다. 이와 같이 호복은 이미 초선·조우의 관식을 갖춘다. 그런데 조우 중에는 갈(鷓)과 준의(駿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무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같다. 이 준의 혹은 초선의 사용은 대개 정제가 없는데, 아마도 조나라 때부터 이미 그리하였을 것이다. 한초(漢初)에 시중은 준의, 중엽이후는 초선으로 바꾸어, 준의를 꽂는 것은 무신의 관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속한지에 이것을 분별하고 있다. 준의는 갈(鷓)과 같이 치(雉)에 속한다. 설문해자에 준의는 별(鶩)이라 하였다. 별은 적치(赤雉)를 말한다. 같은 치와 비슷한데 상당(上黨)²⁵⁾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두 글자는 비슷하여 서로 이렇게 상통한다. 이 관은 한나라 때는 무관·무번·번관·대관이라는 여러 이름이 있었고, 진·송 이후 또 건

관·농관이라 하였으나, 이는 관이 높고 커진 것에 비유한 것이다.

其制冠則惠文

蔡邕獨斷武冠或曰繁冠今謂之大冠武官服之侍中中常侍加黃金附蟬貂鼠尾飾之太傅胡公說曰趙武寧王效胡服始施貂蟬之飾秦滅趙以其君冠賜侍中
司馬彪續漢書輿服志武冠一曰武弁大冠諸武官服之侍中中常侍加黃金附蟬爲文貂尾爲飾謂之趙惠文冠胡廣說曰趙武寧王效胡服以金貂飾首前插貂尾爲貴職秦滅趙以其君冠賜近臣
又武冠俗謂之大冠環纒無髮以青絲爲緁加雙鷓尾爲鷓冠云鷓者勇雉也其鬪對一死乃止故趙武靈王以表勇士秦施安馬
案胡服之冠漢世謂之武弁又謂之繁冠古弁者讀若盤繁讀亦如之疑或用周世之弁若插貂蟬及鷓尾則確出胡俗也其插貂蟬者謂之趙惠文冠惠文者趙武寧王子何之諡武寧王服胡服惠文王亦服之後世失其傳因以惠文名之矣其加雙鷓尾者謂之鷓冠亦謂之駿驥冠淮南王術訓趙武寧王貝帶'駿主'而朝趙國化之高誘注'駿主'讀曰私鉗頭兩字三音蓋以駿主爲帶鉤之師比然史記俠幸傳云孝惠時郎中皆冠駿驥貝帶說文解字鳥部亦云秦漢之初侍中冠駿驥則淮南書之駿主確爲駿驥之誤又冠名而非帶鉤名也如是胡服冠飾既有貂蟬鳥羽之殊而鳥羽中又有鷓與駿驥之異然用無冠則同其插駿驥或貂蟬蓋無定制恐自趙時已然漢初侍中插駿驥中葉以後易以貂蟬而以插駿驥者爲武臣冠故續漢志分別言之至駿驥與鷓同爲雉屬說文解字駿驥驚也驚赤雉也鷓似雉出上黨二者相似故得互言之其冠漢時有武冠武弁繁冠大冠諸名晉宋以後又謂之建冠又謂之籠冠蓋比餘冠爲高大矣

3. 호복의 구대

조책²⁶⁾에 조무령왕이 주소²⁷⁾에게 호복 의관과 구대²⁸⁾와 황금사비²⁹⁾를 주어 왕자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회남자주술훈³⁰⁾에 의하면 조무령왕 패대(貝帶) 준주하여 조회에 임하였다

〈왕국유생각〉 조책에는 구대, 회남자에는 패대라 하여 서로 다르다. 사기 및 한서 흉노전에 모두 황금식 구대 한가지로 말하고 있다. 가의³¹⁾의 신서흉노편에는 수의구대(繡衣具帶)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와 한서영행전 및 금본(今本) 목천자전³²⁾에 모두 패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두 글자가 모양이 비슷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착오인 것 같다. 안사고³³⁾주의 한서영행전에 말하기를 패대는 해패(海貝)의 식대(飾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대는 본래 호제(胡制)에서 나온 것인데, 호인의 근거지는 물

이 적어 그 패기³⁴)를 얻기 어려워 황금식으로 대신 하였다. 나아가 패식으로 구(具)를 만들어 구대로 삼았는데, 구대는 황금구대의 약칭이다. 오로지 한서준 불의전³⁵)에 퇴구검, 왕망전에는 옥구검이라 하였다. 예전의 대대나 혁대는 모두 장식이 없는 것이었으나, 장식이 있으면 호대였다. 그리하여 후세에 이 장식으로 이름을 부쳐 교각혁대(校飾革帶), 안식혁대(鞍飾革帶), 금환삼루대(金環參鑲帶), 금량낙대(金梁絡帶), 기량대(起梁帶)라 칭하였는데 모두 이것은 한자 명칭이며, 호의 명칭은 괘락대(郭洛帶)였다. 고유의 회남주술훈 주에 사비두 괘락대에 조적³⁶)을 건다고 하였다. 안사고의 한서홍노전 주에 장연³⁷)은 말하기를 선비 괘락대는 서수(犀鬚)이고, 동호는 즐겨 이것을 착용했다. 어환³⁸)의 전략에는 이것을 괘락대라 하였다. 오지제갈각전에는 이것을 구락대라고 하였다. 송서예지에 의하면 고습복의 띠대는 즉 괘락대, 구락대를 생략한 것이다. 황금사비는 구대를 말하는 것으로 역시 본래 호명이다. 초사대초³⁹)에는 선비족도 이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왕일의 주에는 선비는 곤대두라고 하였다. 사기홍노전의 무소뿔 혁대의 '서비(胄毗)', 한서의 서비(犀毗)와 고유 회남주에서 말하는 '사비두(私鉞頭)'는 모두 선비족 언어로 쓰이면서 와전된 것으로, 연독(延篤)⁴⁰)이 말하는 호혁대(胡革帶)의 구(鉤)가 이것이다. 옛날에는 대대도 혁대도 있었다. 옥조기에 대대의 제도는 모두 유약조⁴¹) 3촌을 사용하지만 대대에는 구가 없다고 하였다. 춘추좌씨전 소공11년전에 말하길 의(衣)에 괴⁴²)가 있고 대(帶)에 결⁴³)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대를 말하는지 혁대를 말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매듭이 있으면 갈고리가 없다. 그리하여 옛날의 혁대는 항상 구를 사용한다. 좌씨 회24년전에는 제의 환공이 관중으로 하여금 공(公)의 구(鉤)를 표적으로 활을 쏘게 하였다. 사기 제태공세가에 말하기를 관중은 소백대구(小白帶鉤)에 적중했다고 한다. 순자에론편에 신⁴⁴)의 끝을 꽃아 넣어 구대(鉤帶)없는 신을 대대로 삼고, 혁대라 한 것은 모두 옛날에 대(帶)에 구(鉤)를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각할 수 없는데, 황금 사비로 대구를 만든 것은 당시 조의 무령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其帶具帶

趙策趙武寧王賜周紹胡服衣冠具帶黃金師比以傳王子也

淮南主術訓趙武寧王貝帶駿予而朝

案貝帶貝帶國策淮南互異史記及漢書匈奴傳皆云黃金飾貝帶一賈誼新書匈奴篇云繡衣貝帶而史漢倭幸傳及今本穆天子傳均作貝帶二字形相近故傳寫多訛顏師古注漢書倭幸傳云貝帶海貝飾帶然此帶本出胡制胡地乏水得貝甚難且以黃金飾不容史以貝飾當以作貝是貝帶者黃金貝帶之略猶漢書萬不疑傳之云玉具劍王莽傳之云玉具劍也古大帶革帶皆無飾有飾者胡帶也後世以其飾名之或謂之校飾革帶或謂之鞍飾革帶或謂之金環參鑲帶或謂之金梁絡帶或謂之起梁帶凡此皆漢名胡名則謂之郭洛帶高誘淮南主術訓注私鉞頭郭洛帶係銚鑄也顏師古漢書匈奴傳注引張宴曰鮮卑郭洛帶瑞獸也東胡好服之魚豢典略謂之廓落帶吳志諸葛恪傳謂之鉤絡帶宋書禮志袴褶服之結帶即郭洛帶鉤絡帶之省也黃金師比者貝帶之亦本胡名楚辭大招作鮮卑王逸注鮮卑鞮帶頭也史記匈奴傳作胄毗漢書作犀毗高誘淮南注作私鉞頭皆鮮卑一語之轉延篤所謂胡革帶鉤是也古有大帶有革帶玉藻記大帶之制曰并紐約用組三寸是大帶無鉤也左氏昭十一年傳云衣有袷帶有結此不明言其為大帶革帶有結則亦無鉤矣然古革帶當用鉤左氏僖二十四年傳齊桓公置射鉤而使管仲相史記齊太公世家云管仲射中小白帶鉤荀子禮論篇繆紳而無鉤帶紳為大帶則鉤帶或指革帶皆古帶用鉤之證然其制無考其用黃金師比為帶鉤當自趙武寧王始矣

4. 호복의 피혁 신발

광운⁴⁵)의 괘과에 석명을 인용한 화(韉)는 본래 호복이며, 조의 무령왕이 신었다고 한다.

태평어람⁴⁶)에서도 석명을 인용한 화는 본래 호명이며, 조의 무령왕이 그것을 처음으로 신었다고 하였다.

〈왕국유생각〉 지금 석명에서 말하는 화(韉)는 과(跨)이다. 양다리를 각각 갖는 것을 말한다. 삭탁⁴⁷)은 화의 발뿌리를 뺀 것으로 호에서 이름부친 것이다. 조무령왕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대개 지금 본설이 와전된 것이다. 광운과 어람의 원문 인용은 다른 것이다. 조의 무령왕이 이것을 처음 착용하였다 하나 의심스럽다. 석명본계에서 삭탁화가 빠진 것은, 앞에서 말한 용자가 호중에서 이름이 온 것이기 때문이다.

其履韉

廣韻八戈引釋名韉本胡服趙武寧王所服太平御覽引釋名韉本胡名也趙武寧王始服之案今本釋名云韉跨也兩足各以日跨騎也(革索)(革鞞)

韠之缺前壘者胡中所名也無趙武寧王始服事蓋今本訛脫光韻與御覽所引亦非原文皆隱括其意疑趙武寧王始服之一語釋名本繫於舄韠之缺前壘者胡中所名也下

5. 상습하고(上褶下袴)의 제도

사기조세가에 도를 가로막는 자가 간자(48)에게 말하기를, 군의 후대에 이르면, 호복 입는 제도가 고쳐질 것이라 하였다. 장수질의 사기정의에 호복은 당시(唐時)의 복제로 '구상(裘裳)'양식은 없어진다 하였다.

〈왕국유생각〉 호복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옷인지 조칙 및 조세가에 모두 설명하는 문장이 보이지 않고, 이후에도 이것을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 단지 장수질의 사기정의에 당시(唐時)의 복제를 이것으로 한다고 할 뿐이다. 당(唐)의 시복에 상복(常服)과 고습(袴褶) 두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정하여 상습하고(上褶下袴)라 하였다. 즉 후세의 소위 고습의 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호복의 관(冠)·대(帶)·리(履)를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다. 한서무오자전의 창읍왕(49)에서 말하는 단의대고와 혜문관의 혜문은 고습의 관에 해당한다. 진서여복지와 송서예지에 고습복은 허리에 낙대(絡帶)가 있는데 반혁(鞞革)으로 대신한다. 낙대가 구대의 호명(胡名)이며 바로 고습복의 대를 말한 것이다. 수서 예의지에 리(履)는 여러 옷에 사용하지만, 고습에는 화(韠)를 착용한다고 하니, 화는 고습복에 착용됨을 알 수 있다. 조무령왕이 입은 호복은 습복의 관을 쓰고 습복의 대를 매고 습복의 신을 신은 것이다. 즉 이 복식이 고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제도에 따라 상고하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하겠다. 습은 상의(上衣)로 사상례(50)에 수의(綈衣)는 습(褶)으로 하며 여기에 반드시 상(裳)이 있다고 하였으니, 습과 상은 한 쌍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석명에도 습(褶)은 습(襲)이며 위를 덮는다고 하였다. 또 유막(51)이란 기주(52)에서 얻은 명칭으로, 이곳의 대습(大褶)은 무릎 밑까지 닿는다. 대습이 무릎에 오면 소습은 무릎보다 짧을 것이다. 안사고주 권취편(53)에 습(褶)은 중의(重衣)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이며, 모양은 포(袍)와 같이 단신(短身)에 광수(廣袖)라고 하였다. 이들 모두는 습을 상의로 하는 증거가 된다. 고(袴)는 설문에 경의(脛衣)라 하고, 석명에는 과(跨)라 하여 양 가랑이가 따

로 된 것을 말한다. 모두 한쪽의 상(裳)과 다름을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위에 단의를 입고, 아래에 가랑이를 따로 하는 옷은 옛날에는 없었다. 예전에 그것은 설의(54)였다. 그러나 속옷으로 유고(襦袴)가 있었는데 비단으로 하지 않는다. 좌씨전에 징건(徵褻)과 유건(楡褻)은 역시 고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에 상이 있어야 하나, 이것은 심의로 그 역할을 해준다. 유고가 있었지만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는데, 고(袴)를 외복(外服)으로 하는 것은 고습복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옷의 시초는 승마풍속에 기원을 두는데, 대개 옛날의 상의(裳衣)는 원래 승차(乘車)할 때 입는 복식이다. 전차 타는 습속을 승마로 전환하기에 이르러서는 단의(55)의 여러 폭을 연결하여 상을 만들고, 56) 심의의 의상을 연결하여 길게 만들어 땅을 덮는 것은 모두 행동에 불편한 것이다. 조무령왕이 이것을 호복으로 바꾼 것은 본래 기사를 훈련시키는 계획에 의한 것으로 상습하고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당시 사리에 따라 추측하였을 뿐이다. 무령왕 당시 고습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 제도는 반드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장수질의 상을 폐한다는 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其服上褶下袴

史記趙世家當道者謁簡子曰及君之後嗣且有革政而胡服張守節正義胡服謂今時服也廢除裘裳也

案胡服之衣趙策及趙世家皆無文自來亦無質言之者惟張守節正義以唐之時服當之唐之時服有常服袴褶二種今定以爲上褶下袴卽以後世所謂袴褶服當之者由胡服之冠帶履知之也漢書武五子傳故昌邑王衣短衣大袴冠惠文冠則惠文者袴褶服之冠也晉書輿服志宋書禮志皆云袴褶之服腰有絡帶以代鞶革絡帶者具帶之胡名則具帶者袴褶服之帶也隋書禮儀志履則諸服皆用惟袴褶以韠則韠者袴褶服之履也趙武寧王所服胡服冠褶服之冠束褶服之帶履褶服之履則其服爲袴褶可知此可由制度推之者也褶者上衣士喪禮緣者以褶則必有裳褶與裳對文言之釋名褶襲也覆上之言也又留幕冀州人所名大褶下至膝者也大褶之膝則小者較膝爲短矣顏師古注急就篇云褶重衣之最在上者也其形若袍短身而廣袖皆褶爲上衣證也袴者說文云袴脛衣也釋名云袴跨也兩股各跨別也皆特舉其異於裳者言之上短衣而下跨別此古服所無也古之襲衣亦有襦袴內則衣不帛襦袴左氏傳徵褻與襦褻亦袴也然其外必有裳若深衣以覆之雖有襦袴不見於外以袴爲外服內袴褶服始然此服之起本於乘馬之俗蓋古之裳衣本乘車之服至易車而騎則端衣之聯諸幅爲裳者與深衣之連衣裳而長且被土者皆不便於事趙武寧王之易胡服本爲習騎射計則其服爲上褶下袴之服可知

此可由事理推之者也雖當時尚無袴褶之名其制必當如此張守節廢裳之說 殆不可易矣

金橫帶古服所無即具帶也單攻狄之歲雖不可考然在復齊之後則後於趙武寧王之服胡服殆三十年矣鷩冠子未詳何時人其書有趙武寧王篇知亦在武寧王以後故皆用其冠帶知戰國時之服胡服不限於趙國矣

6. 전국시대의 호복풍습

초사대초에는 소요수경(小腰秀頸)⁵⁷이 선비와 같다고 하였다.

제책에 전단⁵⁸이 적(狄)⁵⁹을 공격하였으나 3개월이 되어도 극복하지 못하였다.

제나라 영아노래에 '대관(大冠)은 키와 같고 칼을 차고 눈을 부릅뜨고 적을 공격하지만 고구(枯丘)라는 성채를 점령할 수는 없네'라 하였다. 노중자⁶⁰ 말하기를 지금 장군은 동편에 야욕의 봉, 서편의 치상의 우가 있어 황금의 횡대⁶¹를 하고 치민⁶²의 사이를 달리는가 하였다.

한서예문지에 갈관자 일편 원주(原注)에 초인(楚人)이 심산에 살면서 갈(鷩)로 된 관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왕국유생각〉 대초(大招)를 굴원(屈原) 혹은 경차(景差)가 지었다는 두 설이 있으나, 굴원이 초에 있을 무렵, 양왕(襄王)이 굴원을 강남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와는 같지 않다. 이후 조무령왕이 호복을 입기 시작한 것에서 십여 년이 지났으므로 선비족의 말에 이러한 것이 있을 뿐이다. 전단의 대관·수검·황금횡대와 같이 대관은 혜문관 황금횡대인데, 옛날 옷에는 없는 구대이다. 전단이 흉노를 공격할 때 생각할 수 없다고 해도, 제나라를 다시 수복한 후의 일은, 조무령왕 호복 착용 이후 거의 30년 후의 일이다. 갈관자⁶³는 어느 시대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 책에 조무령왕편이 있어 무령왕 이후에 그 관대를 착용하였다 하니 전국시대에 호복은 조나라에 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戰國之季他國已有效其服者

楚辭大招小腰秀頸 若鮮卑只
齊策田單攻狄三月而不克之也齊嬰兒謠曰大冠若箕修劍拄頤攻狄不能下壘枯丘魯仲子曰今將軍東有夜色之奉西有莒上之虞黃金橫帶而馳乎淄澗之間
漢書藝文志鷩冠子一篇注楚人居深山以鷩爲冠
案大招或云屈原所作或云景差二說不同要在楚頃襄王放原江南以後去趙武寧王之初胡服至少且十餘年故有鮮卑之語若田單之大冠修劍黃金橫帶大冠即惠文冠黃

7. 한나라 시대의 근신과 무사의 관복양식

사기영행전에 효혜⁶⁴시기에 낭중은 모두 준의 패대(貝帶)를 하였다.

한서경13왕전 광릉왕⁶⁵이 전문을 떠나 성경화⁶⁶를 그렸는데, 그 그림에 단의와 대고 장검을 하고 다니는 것을 잘 그렸다. 7척5촌의 검을 만들고 피복도 모두 모방하였다.

또 무오자전에 고로 창읍왕의 의복은 단의 대고에 혜문관을 썼다.

또 한서개관요전에 관요⁶⁷가 처음으로 위사마⁶⁸를 배알한 후, 아직 전문을 나오기도 전에 그 단의를 끊어 땅에 버리게 한 후, 대관을 쓰고 장검을 찼다.

동관한기⁶⁹ 광무초⁷⁰에 제계⁷¹와 함께, 백승⁷²이 궁노 강의 적책을 거래하는 시회를 열었다. 제가의 자제들이 모두 말하길, 백승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위에 강의를 입고 대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근후자⁷³ 역시 옛 관습을 따르려 하였구나 하였다.

또 단경⁷⁴에게 적책(赤幘) 대관(大冠) 일구를 사여하다.

독단에는 무관(武冠)을 번관이라 하며, 후한은 대관이라 칭하여 무관들이 착용하고, 시중·중상시는 황금부선을 가하고 초서미로 장식한다 하였다.

속한지⁷⁵에 의하면 무관을 무번대관이라 하며 무관들이 착용한다 하였다.

또 무관에 갈미를 좌우 쌍으로 세워 갈관이라 하였는데, 오관은 좌우중량, 호분우림, 오중량장, 우림 좌우감이다. 모두 갈관을 쓰고 사곡단의⁷⁶를 입었다. 호분⁷⁷장은 호문의 고를 입고, 백호문양의 검을 패도하고, 호분기는 모두 갈관 호문단의를 입었다.

〈왕국유생각〉 위에 인용한 9가지 고사는, 호복의 관을 쓰거나 그 옷을 입거나, 혹은 모두 관복을 입거나, 관대를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속한지에 말하길 오중량장·호분무기 등이 모두 갈관을 쓰고 단의를 입는다 하였다. 한시(漢時)의 단의는 심의제와 같

은데, 단지 이관을 쓰는 자도 아직은 반드시 이 옷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기에 관복은 대개 이와 같이 전승되어, 가령 창읍왕이 입은 것이 이런 것으로, 개관요가 입지 않으려 한 것은 단의(單衣)이며, 전문을 나가지 않으면 이 옷을 바꾸지 않았다. 또 동관기 기록대로 광무의 강의 적책 및 적책 대관은 단지 이관 및 그 옷 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입은 옷의 종류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의 적책 강의 사실은 고습의 복인데,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느냐 하면, 주례 사복 정주에 말하기를 지금의 오백 제의(78)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최표(79) 고금주에 말하기를 지금의 호백(80)은 강책(絳幘) 혼의(纁衣)를 입는데 오백은 차전에서 길은 인도하는 사졸을 말한다. 지금 전하는 한화상 차전의 사졸들은 모두 단의와 고를 입고, 오백의 강책의도 고습복이다. 광무의 강의적책(絳衣赤幘) 및 적책대관은 호복의 관을 쓸 뿐 아니라 호복의 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한 이후 변혁이 있어 호복의 관을 무관의 관으로 하여 이 복을 바꾸고 호복의 복을 사졸의 복으로 하고 그 관을 제거하고, 오로지 무관의 책을 사용한 것은, 모두 예전의 호복의 기원이며, 때문에 이 흔적을 추종할 수 있다. 그러나 즉 후한 중엽 후 고습복은 단지 사졸에게만 미치고 무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고로 최염(81)이 위의 태자를 간하는 문서에서, 습을 우려(82)의 천복으로 간주한 것이다.

至漢而爲近臣及武士之服或服其冠或服其服或并服焉

史記侯幸傳孝惠時郎中皆冠駿驥員帶
漢書景十三王傳廣陵王去殿門有成慶畫短衣大袴長劍去好之作七尺五寸劍 被服皆效焉
又武五子傳故昌邑王衣短衣大綰冠惠文冠
又蓋寬饒傳寬饒初拜爲衛司馬未出殿門斷其單衣令短離地冠大冠帶長劍
東觀漢紀光武初與諸季市弓弩絳衣赤幘初伯升之起諸家子弟皆曰伯升殺我及見上絳衣大冠乃驚曰謹厚者亦復爲之
又紹賜段熲赤幘大冠一具
獨斷武冠或曰繁冠今謂之大冠武官服之侍中中常侍加黃金附蟬貂鼠尾飾之
續漢志武冠亦曰武弁大冠諸武官服
又武冠加雙鷄尾豎左右爲鷄冠云五官左右中郎虎賁羽林五中郎將羽林左右監皆冠鷄冠紗縠單衣虎賁將虎文袴白虎文劍佩刀虎賁武騎皆鷄冠虎文單衣
案上九事或著胡服之冠或但著其服或并著冠服或并著

冠帶續漢志言五中郎將虎賁武騎等皆冠鷄冠而服單衣案漢之單衣如深衣制則但著其冠者未必卽服其服也然其初冠服大抵相將如昌邑王所服者是蓋寬饒之斷其單衣者以未出殿門不及易服也又如東觀記所記光武之絳衣赤幘及赤幘大冠雖但著其冠及服之色而不著服之種類然漢時赤幘絳衣實爲袴褶之服何以證之周禮司服鄭注云今伍伯緹衣崔豹古今注云今戶伯絳幘纁衣伍伯者車前導引之卒今傳世漢畫象車前之卒皆短衣著袴由伍伯之絳幘衣爲袴褶之服知光武之絳衣赤幘及赤幘大冠不獨冠胡服之冠亦服胡服之服矣後漢以還頗有變革或以胡服之冠爲武冠之冠而易其服以胡服之服爲士卒之服而去其冠然猶用武冠之幘其皆出於古之胡服猶可得而求其蹤跡也然則後漢中葉後袴褶之服但施於士卒而不及武官故崔瑗諫魏太子書以褶爲虞旅之賤服也

8. 한나라 말기의 군대의 고습제도

한나라 말기에 군대의 출동이 자주 발생하여, 이 옷을 입은 자가 많았다. 이때 처음으로 고습이란 명칭이 보였다.

강표전(83)에 여범(84)이 잠시 손책(85)의 도독 자리를 넘보았다. 손책이 말하길 자형(86)경이 이미 상대부 수하를 합하여 사사로이 대중을 거느리고 있어서 공격이 밖으로 떨쳤는데 어찌하여 또 소직에게 굽혀 군중의 사사로운 일을 알리고 하느냐. 여범이 밖으로 나와 즉시 구(87)를 벗고, 고습을 입고 채찍을 잡고 누각 아래로 가서 스스로 도독이라 칭하였다. 위지최염전에 태조(88) 병주를 정복한 후, 최염을 머물게 하고 문제(89)에게 도읍지 업(鄴)을 지키도록 했다. 세자는 여전히 전렵에 입는 것과 타는 것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민첩한 행동을 위해서이다. 최염은 글로서 간하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건데 저부(儲副) 즉 세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람되게 오랑캐의 천한 옷을 입고 함부로 말을 달리면서 위협을 무릅쓰며 평이나 토끼 등의 하찮은 수렵물에 마음을 빼앗겨 사직의 중대함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식자들이 측은하게 여기는 바이다. 생각건대 세자는 양산을 불태우고 상의를 벗어 버림으로, 많은 사람의 희망을 저버리니, 노부(90)로서 어찌 죄를 다할 것 인가? 세자 대답하기를, 어제 천자 명을 받들어 우아한 몸가짐을 보였다. 우산을 태워버리고 습(褶)을 버리고 싶었지만, 우산은 저절로 망가져 버리고 습도 역시 사라져 버렸다.

<왕국유생각> 고습(袴褶)이라고 연결된 두 글자는

강표전에 처음으로 보인다. 위지에서 말하는 번예연습(燔鬻捐褶)은 고습을 생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아 한말의 고습은 장령⁹¹⁾ 및 사졸의 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문제(魏文帝)는 태자 시에 사냥을 위한 기마 시에 이 옷을 입혔으며, 이것은 상하가 통용하였다.

漢末軍旅數起服之者多於是是有袴褶之名

姜表傳呂範自請覲領孫策都督策曰子衡卿既上大夫加手下已有大眾立功於外豈宜復屈小職知軍中細碎事乎範出便釋袴著袴褶執鞭詣閣下自稱領都督。
魏志崔琰傳太祖征并州留琰傳文帝於鄴世子仍出田獵變易服乘志在驅逐琰書諫曰深惟儲副以身爲寶而猥毀虞旅之賤服忽馳驚而陵險意雉堞之小娛忘社稷之爲重斯誠有識所以惻心也惟世子燔鬻捐褶以塞衆望不令老夫獲罪於天世子報曰昨奉嘉命惠示雅數欲使燔鬻捐褶鬻已壞矣褶亦去矣
案袴褶二字連文始見江表傳魏志言燔鬻捐褶則袴褶之略也由此二事知漢末袴褶爲將領之卑者及士卒之之服及魏文帝爲魏太子馳騁田獵亦服此服自是復通行於上下矣

9. 위진 시대의 사서복

위진 이후 강좌⁹²⁾에서 사서들이 이것을 입었다.

어림⁹³⁾에 하소명(夏少明)은 동국(東國)에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듣기로는 배일민⁹⁴⁾은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낙양에 입성할 때 따라 들어왔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가옥의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한 사람이 황포 고습차림에 승마하여 사냥 가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일민이다.

진서곽박전에는 곽박⁹⁵⁾이 중흥 초기에 월성을 거쳐서 가는데 우연히 한사람을 만나게 되어 이름을 불렀다. 고습을 그에게 주었으나 그 사람은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또 은일전⁹⁶⁾에는 여항령⁹⁷⁾ 고양⁹⁸⁾이 곽문⁹⁹⁾의 산행에 피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죽 고습일구를 선물했는데 곽문은 받지 않았다.

남제서왕환전¹⁰⁰⁾에는 상, 행복의 제무(諸戌)의 사졸의 복식이 대단히 남루하여, 고습 삼 천 벌을 보내 환으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어주게 하였다.

魏晉以後至於江左士庶服之

語林夏少明在東國不知名聞裴逸民名知人乃入洛從之日未至家少許見一人著黃皮袴褶乘馬將獵即逸民也
晉書郭璞傳璞中興初行經越城遇一人呼其姓名因以袴褶遺之其人辭不受
又隱逸傳餘抗令顧颺以郭文山行或須皮衣贈以韋袴褶一具文不納
南齊書王奐傳上以行北諸戌士卒多襁纒送袴褶三千具令奐分賦之

10. 백관의 복식

위(魏) 백관명에 의하면 삼공¹⁰¹⁾은 조¹⁰²⁾ 즉 황제로부터 청림문기(靑林文綺)의 장수고습(長袖袴褶)을 하사받았다.

진서 여복지에 의하면 고습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근대에 이르러 황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갈 때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의 비상시의 복으로 사용되었고, 정해진 색은 없지만 흑모(黑帽)를 쓰고 자표(紫標)를 붙인다. 표는 증(繪)으로 만들며 길이4촌 넓이 1촌이며 허리에 락대(絡帶)가 있는데 가죽의 대대로 대신한다. 중관은 자표, 외관은 강표를 하며, 비상시에는 용복이 있으나 표를 붙이지 않았다. 야행 시에는 문무 모두 같았다. 그 진렵 행차에는 단지 종신은 용복에 가죽의 대대를 매고 문관은 끈을 늘어뜨리지 않으며 무관은 끈을 썼다고 하였다.

송서예지에도 같은 기술이 있다.

수서예의지에 양(梁)의 천감¹⁰³⁾령에 고습은 최근의 의복으로, 이것은 용복을 따른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임으로 백관문무 모두 이것을 입는다 하였다.

진서양제전에는 양제¹⁰⁴⁾가 일찍이 무제를 따라 북망하¹⁰⁵⁾로 교렵¹⁰⁶⁾을 갔을 때 시중을 드는 왕제도 함께 포(布)고습을 입고 기마하여 각궁을 잡고 가마앞에 서 있었다.

진의회 기거주¹⁰⁷⁾에 안제¹⁰⁸⁾ 형주¹⁰⁹⁾로부터 신정¹¹⁰⁾에 이르러 조하여 말하기를 모든 시관은 용행 시에 주복¹¹¹⁾을 마련하지 말고 모두 고습을 따르라 하였다.

송서문구왕전에 당시 내외 계엄 시에 빠짐없이 고습을 입는다고 하였다.

百官服之

魏百官名三公朝賜青林文綺長袖袴褶
 晉書輿服志袴褶之制未詳所起近世凡車駕親戎中外戒嚴之服服無定色冠黑帽綴紫標標以繪爲之長四寸廣一寸腰有絡帶以代鞶革中官紫標外官絳標又有纂嚴戎服而不綴標行留文武悉同其政獵巡幸則惟從臣戎服帶鞶革文官不下纓武官服冠
 宋書禮志同上
 隋書禮儀志梁天監令袴褶近代服以從戎今纂嚴則百官文武威服之
 晉書楊濟傳嘗從武帝校獵北邙下與侍中王濟俱著布袴褶騎馬執角弓在鞶前
 晉襄熙起居注安帝自荊州至新亭詔曰諸侍官戎行之時不備朱服悉令袴褶從也
 宋書文九王傳時內外戒嚴普服袴褶

齊書東昏侯紀帝著織成袴褶金簿帽執七寶縛稍戎服急裝不變寒暑
 又高祖師至帝著烏帽袴褶備羽儀登南掖門臨望
 南史東昏侯紀戎服急裝縛袴上著絳衫以爲常服
 案袴褶本天子親戎之服若宋之蒼梧齊之東昏以爲常服非晉宋以來故事故宋太皇太后令云昱弁冠毀冕長襲戎衣齊宣德皇后令云身居元首好是賤服危冠短服坐臥以是以爲二帝罪狀也

11. 천자의 복식

진서여복지 고습은 근대 무릇 차가친용 중의계엄의 복이라고 하였다.

송서후폐제기112)에 황제는 항상 소고습(小袴褶)을 입고 의관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서동혼후기113)에는 황제는 직물로 된 고습과 금부모114)를 착용하고 칠보박삭115)을 잡는 등, 급히 전투복으로 치장하여 추위와 더위에도 변함이 없었다.

또 고조116)는 사117)를 지극히 생각하여 황제 오모 고습을 입고 우의를 갖추어 남백문118)에 올라 바라보다.

남사동혼후기에 용복 급장에 박고119)하여 위에 강삼을 입는다. 이것을 상복으로 삼는다.

〈왕국유생각〉 고습은 본래 천자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의복이다. 송의 창오는 제의 동혼과 같이 이것을 상복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은 진송 이래의 고사에는 없다. 따라서 송의 태황태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폐제 창오왕 옥(昱)은 변관(弁冠) 면(冕)을 파손하여 버리고 오랫동안 용의를 입었다. 제의 선덕왕후가 말했다. 몸은 원수(元首)의 신분인데도 이러한 천한 복식을 좋아하여 위관단복120)으로 앉거나 눕고 하니 이것이 바로 창오왕과 동혼후 두 사람의 죄상이라고 했다.

天子亦服之

晉書輿服志袴褶近世凡車駕親戎中外戒嚴之服
 宋書後廢帝紀帝嘗著小袴褶未嘗服衣冠

12. 북조의 전투복 및 행려복

단지 이것은 용복 및 행려의 복장으로 삼을 뿐으로, 북조121)란 원래 용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옷이 매우 성행했다.

조서122) 및 배헌123) 찬 삼정동경의124)에 중서령125) 서광이 친경을 상소하여 청경126)의 고습으로 갈아입었다.

然但以爲戎服及行旅之服而已北朝起自戎夷此服尤盛

趙書裴憲撰三正東耕儀中書令徐光奏親耕改服青縑袴褶

13. 부녀의 복식

이를 부녀자에게도 시행하게 하였다

육해127)의 업증기128)에 석호129)시대에 황후가 여기 1천을 노부로 삼았다. 겨울에 모두 자색의 룬건130)을 띠고 금고습(錦袴褶)을 입었다. 허리에 금환삼루대131)를 띠고, 모두 오채직성의 가족신을 신는다고 하였다.

至旅之於婦女

陸翽鄴中記石虎時皇后出女騎一千爲鹵簿冬月皆著紫綸巾執錦袴褶腰中著金環參鏤帶皆著五采織成靴

14. 후위초의 상복

후위 처음으로 이것을 상복으로 하다

위서호수전132)에 호수가 귀승133)의 문에 이를 때마다 암컷 말을 타고 헤어질 가족 고습을 입었다. 또한 호수가 고윤134)의 저택에서 중서랑 조근리135) 찬(璨)을 보았는데 찬의 피복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호수는 가난하고 늙고 의복은 보잘 것 없는 갈옷을 입

고 있어, 찬이 자못 이에 놀라 수에게 말하였다. 노자(老子) 지금 만약 입고 있는 고습의모를 벗어도 된다고 한다면 군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가. 옷과 모자를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 일시적인 치장인 성복(盛服)을 자랑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찬은 이 말을 듣고 정곡을 절렸기 때문에 당황했다.

또 효의전¹³⁶⁾에 현조 봉하여, 왕원위¹³⁷⁾가 초려를 주성문밖에 세웠다. 상이 끝날 때까지 야채죽을 먹으며 발을 구루며 통곡할 때 그믐날이 이름에, 조(詔)하여 원위에게 갈아입을 옷으로 백주고습 한 벌을 보냈다.

後魏之初以爲常服

魏書胡叟傳叟每至貴勝之門恒乘一牝牛散韋袴褶而已又度於高允館見中書侍郎趙郡李璨璨被服華靡度貧老衣褐璨頗忽之度謂云老子今若相許脫體上袴褶衣帽君欲作何計也譏其惟假盛服服場然失色
又孝義傳顯祖崩王元成立草廬於州城外衰裳蔬粥哭踊無時至大除日詔送白袖袴褶一具與元威釋服

15. 호복의 조복(朝服)화

위서성엄전에는 태화¹³⁸⁾중에 문명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소색¹³⁹⁾이 그 산기상시 배소명과 조산시랑 사준 등을 파견하여 조복을 입고 상상에 조문하고자 하였다. 주객¹⁴⁰⁾ 여기에 대하여 말하길 조문에는 상식이 있는데 어찌 주의¹⁴¹⁾로 산정¹⁴²⁾에 들어 올수 있느냐, 소명 등이 말하길 본래 조명을 받들기 때문에 개역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였다. 고조¹⁴³⁾ 상서 이충(李冲)에 명령하여 식자 한사람을 선택하여 다시 함께 행사를 논하게 하였는바 충은 주청하여 성엄을 파견했다. 소명(昭明)이 말하길 사람을 시켜 단지 고습만 가져오라, 요즘 융복으로 조문할 수 없다. 다행이 치의도¹⁴⁴⁾를 빌려 행사를 치러서 국가 예법에 맞았다. 고조 명령하여 의도를 보내어 소명 등에게 주었다.¹⁴⁵⁾

〈왕국유생각〉 배소명은 사절이 단지 고습만 가져오라는 것은 본래 고습으로 조문하려 했다. 그러나 위인(魏人)이 이에 가로되 조복으로 조문하고 싶다는 것은 복인이 고습을 조복으로 했기 때문이다. 소

명의 말은 요즘 융복으로 조문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남인은 고습을 융복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서 위로전¹⁴⁶⁾에 노주굉¹⁴⁷⁾이 말하길 겨울 조하¹⁴⁸⁾에 성문법이 없으므로 고습으로 일을 보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일에 겨울 조복의 제도를 만들게 되면 번거로우니 지금부터 소세하¹⁴⁹⁾를 중지하고 세초일¹⁵⁰⁾로 하라.

〈왕국유생각〉 위서고조기에 태화15년 11월 병술에 처음으로 소세하를 중지하다.¹⁵¹⁾ 태화10년 정월 초하루에 황제가 처음으로 곤면을 입고 전국적인 잔치를 하였다. 또 여름 4월 처음으로 오등공복(五等公服)의 제도를 설치하다. 태화15년 정월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소세하시에 백관 중에 겨울 조복을 입는 자는 없었다. 아마도 후위는 본래 고습을 조복으로 삼은 후 이미 오래되어서 갑자기 변할 수 없어서이다. 태화18년 12월에 이르러 의복제를 고치고 이후에 이 법제를 엄하게 하였다.¹⁵²⁾

及朝服

魏書成淹傳太和中文明皇后崩蕭蹟遺其散騎常侍裴昭明朝散侍郎謝竣等來弔欲以朝服行事主客執之曰弔有常式何得以朱衣入山庭昭明等言本奉朝命不容改易高祖勅尚書李冲選一學識者更與論冲奏遣淹昭明言使人惟齋袴褶比既或服不可以弔幸借緇衣帽以申國命高祖勅送衣帽給昭明等
案裴昭明言使人惟齋袴褶是本欲以袴褶弔而魏人謂之欲以朝服行事是北人以袴褶爲朝服也昭明言比既或服不可以弔是南人以袴褶爲戎服也
齊書魏虜傳虜主宏詔季冬朝賀典無成文以袴褶事非禮敬之謂若置寒朝服徒成煩濁自今罷小歲賀歲初一賀
案魏書高祖紀太和十五年十一月丙戌初罷小歲賀先是太和十年正月朔帝始服袞冕朝饗萬國又夏四月始置五等公服至是五年而小歲賀時百官尚無寒朝服者蓋後魏本以袴褶爲朝服相沿已久不能遽變也至太和十八年十二月革衣服之制然後嚴其法制矣

16. 옛날 의관과 고습복

나중에 옛날 의관으로 복귀했지만 이 의복은 없어지지 않았다.

양서진백지전¹⁵³⁾에는 저위가 위나라에 있을 때, 위인이 이 사람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魏의 1월에 저위가 장난삼아 시를 지어 가로되 농관(籠冠)을 쓰고 바지에 주의(朱衣)를 입는다. 현재의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 알 수 없다. 과거의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위인(魏人)이 이에 노하여 시평태수로 내 보냈다.

〈왕국유생각〉 농관은 무관이며 즉 혜문관이다. 주의는 고습의 색이다. 저위가 시로 읊은 것은 바로 고습의 복이다. 저위가 진백지와 위(魏)에 들어가고, 다시 양(梁)에 있을 때, 천감원년(154)에 위가 이시를 만들 때 태화 의복을 혁신하는 제도를 어기어 이미 10년 가까이 원회 시까지 여전히 고습을 입어 세종(155) 이후 복조의 구습을 따랐다. 단지 낙양가람기(156)의 한 사건이 이것과 맞지 않는다. 기록에 말하길 양원신(157)이 진경지(158)에게 물을 뿜으며 말하길 오인(吳人)의 귀신이 건강(159)에 주거하여, 작은 관모 짧은 의상을 입었다고 하고 또 말하길 진경지가 양에 돌아가 우의복식(160)하니 모두 위(魏)의 제도와 같다. 강동(江東)의 사서 서로 다투어 모방하니 이런 포의박대(161)의 관습이 말능(162)에도 빠짐없이 미쳤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북 의복과 전문(前文)에 특징적으로 인용한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 위(魏)의 원회의 복장은 여전히 고습을 사용하였다 하니 즉 상복임을 알 수 있다. 여기의 단소포박(短小褒博)은 거의 동일한 의복제도에 불과하다. 남북이 약간 다소 장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後雖復古衣冠而此服不廢

梁書陳伯之傳褚(糸胃)在魏魏人欲擢用之魏元會元徽爲詩曰帽上蒼籠冠袴上著朱衣不知是今是不知非昔非魏人怒出爲始平太守

案籠冠者武冠亦即惠文冠朱衣者袴褶之色褚謂詩所詠正袴褶服也元與陳伯之入魏在梁天監元年元作此詩時距太和革衣服之制已近十年而元會之時仍服袴褶蓋世宗以後又復用代北舊俗也惟洛陽伽藍記一事與此不合記謂楊元愨含水噴陳慶之曰吳人之鬼住居建康小作冠帽短製衣裳又謂慶之還梁羽儀服式悉如魏法江東土庶競相模楷褒衣博帶被及袷陵云云以南北衣服與上所徵引者相反然是時魏元會之服尙用袴褶則常服可知其所云短小褒博者殆不過同一衣制南北稍有大小長短之別而已

IV. 논의 및 결론

중국에서 처음으로 호복을 착용한 것은 전국 조부령왕이었다. 그 호복채용에 대하여는 무령왕 19년의

일로, 사기조세가에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후세의 학자들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왕국유는 호복고에서 이 호복에 대하여 중국 고전을 이용하여 고증하고 있다.

왕국유는 호복고에서 호복은 고습이라고 하여, 한대의 근신이나 무인의 복이 되어 있던 호복이 한말 전란 시에 널리 착용됨에 따라 결국 고습이란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호복은 나중에 호의 의미와 지역적인 범위의 변화로 인하여, 당시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고습의 의미도 최초에서 변화한다.

후한의 영제는 호복을 선호하였지만 외래문화에 대한 태도는 무령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무령왕은 호복의 기능적인 장점을 받아들였으나, 후한의 영제는 '호'를 이국취미로 받아들였다. 후한 말부터 동진(16)국을 거치는 사이에 북방유목민족은 점차 남하하여 대융합 시대를 맞이한다. 북위의 효문제는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 자기 종족인 선비인에게 한족의 성으로 개명하고 한어를 사용하고 한복을 입도록 하는 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 고유복식인 호복을 금할 수 없어, 한족 전통복식으로 개량된 호복은 복제에서 상복으로 채용되었다. 즉 심괄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복제에 이르러 호복이 대규모로 중국 전통복식 중에 침투되었다.

고습이 문헌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후한시대로, 여범이 활약한 후한 말에는 이미 군복으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습은 후한 경부터 착용되어 왔으나 그것은 아직 중국인의 의식 속에는 오랑캐 군대의 전복이었다. 위서 최염전에 태자가 고습을 입고 질주하는 것을 우려의 천복이라고 간하고 있다.

이 우려의 천복도 진대(晉代)가 되면 그 시원을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천자의 군복, 또는 제관의 비상시의 복장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제도는 정비된 것이 아니고 색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흑모를 착용하고 단지 중관은 자표, 외관은 강표를 붙여 그 차이를 나타내었다.

4세기 초 진은 호족에 밀려 남하하여, 한문화의 전통은 남조로 이어져서 고습이 용복이 되었다. 고습 착용 시에 제대(齊代)에는 모를 쓰고 있었으나 양대(梁代)가 되면 평건책을 착용하였다. 고습색상도 중

관은 자습, 외관은 강습으로 정하고, 허리에 띠대를 매었다.

당대는 천자와 황태자의 승마 시에 자습백고를 입고, 문무관 기마 시에 비습대구고를 입고, 고습의 재질과 색채도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개원시대에 호복이 대유행하나 고습의 착용도 광범위하여 육품이하의 조참복으로 사용하였다. 당대의 호복 고습의 유행은 호복차림의 기마여성도 고습착용의 여성모습이 보인다. 당대에는 호복과 고습에 차이가 있어, 호복은 페르샤를 비롯한 서역지방의 복장이었다. 고습도 오대를 지나 송대가 되면 관리의 고습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중국에 들어와 일천여년 동안 기마복으로 군복으로 조복으로 착용된 고습도 송말에는 모습을 감추고 다음 원대에는 그 형태조차 불명하게 되어 버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습의 습은 소매가 길지 않은 광수의 겹의 단의이며, 고에는 대구와 소구가 있으며 대구는 박고되는 것을 보통으로 하였다. 고습이 가장 유행하였던 남북조 시대 우아한 풍모를 하고 있는 형태를 무인용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대수의 단의위에 양당을 걸치고 대구를 입은 자는 박고를 하고 소구를 입은 자도 있었다.

참고문헌

- 1) 沈括(1031~1095): 송대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이며 박학하여 문학·예술·역사·행정분야는 물론 수학·물리·동식물학에도 공헌하였음.
- 2) 夢溪筆談 卷一 宋沈括 撰故事一
中國衣冠自北齊以來乃全非古制窄袖緋綠短衣長鞞靴有鞞帶然亦有取窄袖利於馳射短衣長鞞皆便於涉草邊人樂茂草常寢處其間予
- 3) 杉本正年 (1986). 王國維 胡服考譯注(1). 風俗, 25(4).
_____ (1987). 王國維 胡服考譯注(2). 風俗, 26(1).
_____ (1991). 王國維 胡服考譯注(3). 風俗, 27(1).
_____ (1994). 王國維 胡服考譯注(3). 風俗, 28(3).
- 4) 明夷待訪錄: 군주의 독재를 배척한 민주적 정치론으로 明夷는 易의 卦象으로 밝은 것이 파괴된 상태를 말하며 明朝의 멸망이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을 반성한 서적
- 5) *Ibid.*
- 6) 趙國: 戰國7雄의 하나로 현재 山西省과 河北省에 위치하고 있었음.
중국 사서의 춘추시대는 전770-전476, 전국시대는 전475-전256, 전국칠웅(燕·齊·趙·魏·秦·韓·楚)의 하나가 소위 조국에 해당되며, 조국은 무령왕시대에 가장 번성하였음.
- 7) 武靈王: 재위 전325-299년으로 조국의 6대왕이며, 7대 혜문왕은 그의 아들임.
- 8) 史記 六國表: 司馬遷의 史記는 全130권으로, 本紀12권, 表10권, 書8권, 世家30권, 列傳70권의 5부로 나누어졌다. 육국표는 표중 3권으로, 육국이란 전국칠웅에서 秦을 제외한 6국을 지칭함.
- 9) 惠文冠: 혜문왕이 쓴 관에서 유래함.
- 10) 蔡邕: 후한의 대학자로 字는 伯喈이며, 박학하고 음악을 좋아하여 琴을 잘 탔다. 官은 議郎이며 封은 高陽侯
- 11) 獨斷: 2권 구성의 서명으로 후한의 채옹 撰으로 자신이 독단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독단은 舊制를 考論하며 遺文을 綜術한 것으로, 白虎通義·風俗通義와 함께 漢代의 學을 연구하는 자료로 중요함.
- 12) 侍中·中常侍: 秦代에 세워진 황제를 좌우에서 보필하는 관명.
- 13) 附蟬: 황금으로 만든 蟬形의 장식.
- 14) 貂皮尾: 담비의 꼬리털을 말하며 貂璫이라 하여 漢代 仲常侍의 관으로 貂尾의 장식과 黃金의 耳璫이 있다. 후에 중상시에 宦者를 사용했기 때문에 널리 宦官을 말하기도 함.
- 15) 太傅:三公인 太師·太傅·太保의 하나로 천자를 모시는 관명.
- 16) 胡廣: 후한사람으로 桓帝를 세운 공에 의해 태부에 오름.
- 17) 黃金璫: 황금으로 만든 당으로, 당은 耳飾 혹은 금옥으로 만들어 관 앞에 부치는 장식을 말한다. 후세에는 금제의 蟬을 부치고 나아가 초미를 더하여 오로지 宦者의 관으로 하였음.
- 18) 金貂: 漢 이후 近侍의 武官의 冠으로 황금의 璫을 달고 초미를 장식함.
- 19) 高誘: 후한의 학자로 전국책·회남자의 주석을 하였음 고
- 20) 駿주(壽+鳥)이나 '주'라는 글자가 없음.
- 21) 師比: 魏대의 절개.
- 22) 孝惠: 전한 2대 惠帝(전195-188).
- 23) 郎中: 천자를 近侍하는 관명.
- 24) 侍中: 秦에서 원래 丞相의 史로 殿內東廂을 왕래하여 일을 보던 관명.
- 25) 上黨: 지금의 강소성에 있는 지명어름.
- 26) 趙策: 전국책의 하나. 전국책의 策은 策略의 의미로, 전국시대의 책략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의 편집자는 劉向의 命名에 의한다. 전국시대에 覇를 닦았던 7強과 東周·西周·宋·衛·中山 등 12국에 대하여 국별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33편으로 구성됨.
- 27) 周紹: 무령왕의 신하.
- 28) 具帶: 한서 흉노전에 의하면 황금식구대라 하여 구대는 황금으로 장식한 大帶.
- 29) 黃金師比: 황금으로 만든 사비로, 사비는 帶鉤를 말하여 魏대의 앞을 장식하는 절쇠.
- 30) 淮南 主術訓: 漢代 21권으로 구성되며 전한 회남왕 劉安이 撰한 것을 후한의 고유(高誘)가 주를 부쳤음. 백과전서로 신화전설 연구자료의 보고.
- 31) 賈誼: 전한 文帝시에 太中大夫에 이르고 저서에 新書와 賈長沙集이 있음.

- 32) 穆天子: 周목왕으로 제5대왕으로 목천자전은 서명으로, 6권 구성으로 찬자 미상
- 33) 顏師古: 唐代的 대학자로, 한서 급취장 등의 주석을 부친.
- 34) 貝綦: 끈, 혹은 조개류, 옥 등.
- 35) 漢書 萬不疑傳: 준불의는 전한 무제시에 淸州刺史, 昭帝초 京兆尹이 되어 엄하게 법을 다스림.
- 36) 銑鏞: 武具의 일종.
- 37) 張宴: 인명인 듯하나 불명.
- 38) 魚豢: 三國 魏의 京兆人으로 明帝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하여, 魏略55권과 典略의 撰者.
- 39) 초사는 전국시대 이전에 초지에서 발생한 韻文, 巫神前의 말이 원형으로, 전한말의 劉向이 초사의 대표작을 골라 편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서물로서 전해진 초사이다. 전16권으로 구성. 굴원 및 그 제자인 宋玉·景差의 작품에 漢代 작자의 것, 후한의 王逸이 자작 1편을 더하여 17권으로 하였음.
- 40) 延篤: 후한인으로 經傳 및 百家에 言通하여 官은 京兆尹. 저서에는 詩·論·銘·書 등 20편이 있음.
- 41) 紐約組: 帶를 交結하기 위해 부친 끈으로 꼬은 多층.
- 42) 襟: 衣의 깃고대가 만나는 곳.
- 43) 結: 매듭.
- 44) 紳: 큰 띠로 예복에 사용하는 大帶.
- 45) 廣韻: 隋의 개황 초 陸法言이 재래의 韻書에 의해 討論刪定하기 십수년 후, 인수원년에 이르러 완성한 것을 切韻이라 이름지었다. 당의 현종 천보10년 孫愐이 여기에 字를 증가하여 당운이라 칭하였다. 송의 진종의 경덕4년 진팽년이 增廣시켜 大中祥符 元년에 완성하여 大宋重修廣韻이라 하였으며 후에 丁度 등이 撰한 集韻과 함께 약하여 廣韻이라 함.
- 46) 太平御覽: 宋의 太平興國2년 李昉 등의 奉敎撰. 태종이 하루에 3권씩 읽어 1년간 걸렸다는데서 이름이 유래됨. 인용한 저작은 1,690중에 이르러 고증학의 자료가 됨.
- 47) 삭탁: 가죽신을 말하는 것으로 글자가 나와 있지 않음(삭=革索, 탁=革鞞으로 만듦).
- 48) 趙蘭子: 字는 鞅으로 춘추시대 晉人으로 定公시에 相이 되었음.
- 49) 昌邑主: 한부제의 손자로 昌邑王賀라고도 한다. 昭帝以後 霍光은 賀를 죽워시켰으나 宴樂淫亂이 심하여 27일 만에 태후의 명에 의해 폐위되어 지금 산동성의 장유으로 유배됨.
- 50) 土喪禮: 儀禮 土喪禮篇. 의례는 중국 고대의 종교적·정치적 의례를 모은 유가 경전의 하나로, 예기·주례와 함께 三禮라고 칭함.
- 51) 留幕: 기주지방의 언어로 옷의 겹침이 긴 것을 말함.
- 52) 冀州: 지금의 하북성.
- 53) 急就篇: 서명으로 漢의 史游의 撰 4권 구성으로 唐 顏師古의 注, 宋 王應麟의 補注, 淸 孫星衍의 考異가 있음.
- 54) 褻衣: 평상복을 말하며, 설문에 설의는 私服·속옷의 의미.
- 55) 端衣: 바른 예복.
- 56) 단의의 裳은 여러 매의 布帛을 연결하여 상을 만듦.
- 57) 小腰秀頸: 허리가 가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다는 의미.
- 58) 田單: 전국시대 지금의 산동성에 있던 齊의 臨淄의 무장.
- 59) 史記 田單傳: 燕의 昭王, 樂毅를 장군으로 삼아 계를 토벌함에 齊의 모든 성이 함락되었다. 그 때 전단이 卽墨을 지키고, 奇計를 가지고 소 천 여두를 모아 朱色衣를 입이고, 그 뿔에 칼을 달고, 꼬리에 갈대를 잡아매고, 기름을 부어 불을 부쳐 밤을 틈타서 燕軍을 향하여 돌진시켜 齊의 70여성을 모두 회복하였다는 故事가 있음.
- 60) 魯仲子: 전국시대 齊의 高士 魯仲連을 말하며, 고도하여 벼슬도 사양하고 남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었으며, 나중에 전단을 제왕에게 추거하여 작위를 주도록 한 후에 해상에 숨어서 종말을 고하였음.
- 61) 黃金橫帶: 황금 장식의 광락대.
- 62) 淄澠: 淄水와 澠水의 사이로, 치수는 산동성 萊蕪縣에서 발원하여 황하로 들어가는 강. 민수는 산동성 임치현의 서북에 위치한 강. 예전에 齊城外에서 서북으로 흘러 麻大湖로 들어가는 강.
- 63) 鷩冠子: 周시대 楚의 사람으로 성씨를 모르나 심산에 거하면서, 항상 갈관을 쓰고 있었다. 갈관자는 3권19편으로 이루어진 서명으로 찬자 미상이다. 혹은 갈관자라 칭하는 초의 은사가 지었다고 함.
- 64) 孝惠: 漢 고조 유방의 아들 惠帝(전195-188).
- 65) 廣陵王: 무제의 제5자인 劉胥로 광릉왕에 봉해지고, 女巫 李女須를 맞이하여, 神을 내려 咀誼하여, 사전 발각되어 자살하였음.
- 66) 成慶肅: 성경은 荊軻를 말하며 전국시대 齊人. 衛나라로 가서 위인에게 慶卿이라 호칭되고, 燕에 가서 荊卿이라 호칭되었다. 독서·擊劍을 좋아하며, 燕의 狗屠 및 高漸離와 친분이 깊었으며, 매일 마시고 노래를 읊었다. 연의 태자 丹의 객이 되었다가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였음.
- 67) 蓋寬饒: 전한 魏郡의 사람으로 자는 次公이며 선조조에 方正에 올랐다. 司隸校尉가 되었으나 강직공경의 성격 때문에 직을 사하고 자살하였음.
- 68) 衛司馬: 전한시대의 군부총감의 관명.
- 69) 東觀漢紀: 동관은 漢代에 궁중에서 저술 장서를 하던 곳으로 동관한기는 서명으로 2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후한의 명제 창수하여, 영제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명제 이후의 잡기를 동관에서 찬수 한 것에서 비롯되었음. 반고·邊韶·蔡邕 등 전후 수십인이 찬수하였다.
- 70) 光武初: 후한 광무제(25-57).
- 71) 諸季: 많은 弟.
- 72) 伯升: 후한 광무제는 伯升과 仲이라는 형이 있었음.
- 73) 謹厚者: 조심성 깊은 사람.
- 74) 段熲: 후한사람으로 字는 紀明이며 會宗의 從曾孫. 어려서부터 弓馬를 배우고, 游俠를 숭상하여 桓帝시대에 護羌校尉가 되었으며 羌寇를 물리쳐 공을 세움.
- 75) 續漢志: 속후한서 47권으로 宋 蕭常 찬으로, 진수의 삼국지가 魏를 帝로 하여 蜀을 내몰고 있어서, 다시 촉의 照烈帝를 정통으로 하여, 魏·吳를 열전으로 떨어트렸음.
- 76) 紗縠單衣: 사곡은 紗로 만든 측면이며, 單衣는 홑겹의

- 143) 高祖: 북조 북위의 6대왕 孝文帝(471-499).
- 144) 緇衣帽: 검은 옷과 쓰개.
- 145) 남조의 조복은 주의, 북조의 조복은 고습. 소명은 朱衣의 朝服을 포기하고 검정복을 빌리게 되었다. 성업전은 생략이 많이 문장이 잘 통하지 않음.
- 146) 魏虜傳: 제서는 북위의 제왕을 소개하면서 위로전이라 하여, 북위가 흉노출신이라 하여 虜(오랑캐)라고 경멸함.
- 147) 虜主宏: 虜主는 오랑캐의 주군이라고 경멸하는 말이며, 宏은 효문제의 이름.
- 148) 朝賀: 제후들이 천자에 알현하여 축하인사하는 것.
- 149) 小歲賀: 동지.
- 150) 歲初一賀: 정월축하.
- 151) 태화18년에 북위 律令을 更定.
- 152) 태화18년 10월 북위가 洛陽으로 천도하고 12월에 북위에서 호복을 금지.
- 153) 陳伯之: 梁의 雒陵人으로 齊에 등용되어 梁과 싸우다 항복한 후 魏로 도망가고 다시 梁으로 돌아가 散騎常侍에 오름.
- 154) 天監元年: 남북조 시대 남조 梁武帝의 연호(502년).
- 155) 世宗: 북위 효문제의 아들 7대왕 宣武帝(499-515).
- 156) 洛陽伽藍記: 6세기의 중국 북위의 수도 낙양을 무대로 인간생활을 기록한 서명으로, 佛寺를 서술하는 체재를 취하면서 정치·풍속에서 전설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장대하게 취한 5권의 서적.
- 157) 楊元愐: 弘農人으로 魏에서 벼슬을 하여 中散에 올랐으나 산수를 좋아하여 老莊을 이상으로 하여 속세를 비탄함.
- 158) 陳慶之: 梁의 國山人으로 字는 子雲, 諡는 武. 官은 普通中(520-527) 武威將軍·假節總知軍事를 지냈으며 魏와 싸움에서 전공을 세움. 大通(527-529) 초 魏의 降將 元顥를 보내고 轉戰하여 낙양에 이르다. 顥에게 車騎大將軍에 추서.
- 159) 建康: 三國 吳의 建業이며 짧은 業을 鄴으로 고치고, 나아가 建康이라 칭하였으며, 고성은 지금 남경시에 있음.
- 160) 羽儀服式: 儀容을 바르게 하여 당당한 풍채로 조정에서 出仕함.
- 161) 褒衣博帶: 품이 넓어 헐렁한 옷과 폭이 넓은 帶로 중국 한족의 전형적인 옷차림.
- 162) 秣陵: 강소성 江寧縣 동남의 현명으로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丹揚郡은 縣이 17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秣陵.